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2호 [무게 제23154호] 주제99 (2010)년 7월 21일 (수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희천발전소건설을 적극 지원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희천발전소건설을 지원하는데서 모범을 보인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전당, 전군, 전민이 총동원되어 희천발전소건설에서 일대 진공전을 벌일때 대한 당의 호소를 받고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교원 권윤희, 평성시남세 및 식료품수매관리소 노동자 김영옥 등 격려에 탄원하여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지원사업도 잘하였다.

상업관리소 교원장 겸 책임자 차명희도 발전소건설을 물심방면으로 지원하였다. 라선상업전문학교 교원 조성진, 라선관광봉사사업소 노동자 한희복, 무연은행 노동자 김영희는 온 가족의 마음을 담아 마련한 물자를 희천발전소건설에서 로력적위훈을 떨치고있는 인민군근로인들과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조국이 기억하는 참된 애국자로 삶을 빛낼 일의 안고 지원사업에서 모범을 보이오신 모란봉구역 월향동 57인민반 김련정, 민흥동 53인민반 안종남은 돌격대원들의 생활을 친어머니심정으로 돌봐주어 그들이 총공격전의 전열에서 힘차게 내달리도록 하는데 기여하였다.

모란봉구역인민위원회 부원 문영희, 건설건설공업성 노동자 김선녀는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주기 위한 투쟁에서 발전소건설이 가지는 의의와 중요성을 자각하고 많은 물자를 마련하여 《희천속도》창조자들에게 보내줌으로써 그들을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지난 기간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한 보훈장관관려국 노동자 윤명옥은 부강조선건설에 모범을 잘 일념하고 희천으로 달려가 돌격대원들의 투쟁을 로력적으로, 물질적으로 도와주었으며 평림군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받아 안은 근로자들은 이 영광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창조자들과 함께 혁신의 한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감으로써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뜻깊게 맞이할 혁명적열정에 넘쳐났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브라질신문이 게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재미교포들이 단합하여 조국통일운동을 힘있게 벌려대 대하여》의 요지를 브라질신문 《오라도 보보》 9일부가 게재하였다. 신문은 머리글에서 올해 7월 8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창건지이신 김일성주석께서 서거하신지 열여섯해가 되는 날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공화국의 영원한 주석으로 인민

들의 다함없는 호모를 받고계시는 김일성주석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일제와 싸워 조국을 해방하고 조선식사회주의를 일떠세우신 위대한 수령이시다. 세계에는 지도자들이 많지만 20세기를 대표하는 수령은 오직 김일성주석 한분이다. 그는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령도하시어 미제에게 쓰디쓴 참패를 안기신 강철의 령장이

《김일성전집》 제88권 출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을 내내 손에 따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수록하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총서인 《김일성전집》 제88권을 조선로동당출판사에서 출판하였다. 전집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제 78 (1989)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기간에 하신 역사적인 연설, 결론, 담화 등 42건의 로작들이 수록되어 있다. 로작들이 발표된 시기는 우리 인민이 제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전면민적대진군운동을 힘있게 벌려 세상이 주목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고 1989년 대를 위대한 승리로 빛나게 장식하기 위하여 대고조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있던 거창한 변혁의 시기였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이 시기에 발표하신 로작들에서 사회주의 대진군운동을 힘있게 다그쳐 우리 제도의 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양

시키며 조국통일과 온 세계의 자주화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지침으로 되는 탁월한 사상과 이론, 방침들을 내놓으시였다. 로작 《민족적근거지와 혁명적자부심을 가지고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자》에는 우리 당이 제시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의 정당성과 생활력, 그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과업과 방도들이 밝혀져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경공업과 농업을 동시에 발전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확고히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관철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이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 나라의 경제를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로선이라는 데 대하여 인정하시니 그 실현에서 나서는 문제들에 명확한 해명을 주시였다. 《인민생활을 높이기 위한 경제과업들을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주체적인 화학공업을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더욱 높이자》, 《일군들의 혁명성,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높여 당의 경공업혁명방향을 관철하자》, 《농사에 필요한 물문제를 풀며 부침방을 개량할데 대하여》를 비롯한 로작들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다그치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발양

명시하고있다. 로작들에는 공작기계공업과 전자, 자동화공업을 발전시켜 생산공정들의 자동화, 로봇화를 실현하고 유연생산체계를 널리 받아들일데 대한 문제, 대규모의 비날론생산기지건설을 다그쳐 주체공업의 위력을 떨칠데 대한 문제, 경공업부문의 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생산능력을 더 조정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리는데 대한 문제 등이 제시되어있다. 당, 국가경제기관 지도인군들은 항일유격대의 지휘관들처럼 모든 일을 주인공으로 책임적으로 하며 혁명적신념을 간직하고 당이 제시한 3대혁명로선을 튼튼히 틀어쥐고나갈데 대한 사상이 로작들에 담겨져있다. 로작들에는 간식지건설을 대대적으로 벌리면서 토지정리와 개량을 잘하고 농산작업의 기계화를 적극 실현하여 정보당 알곡수확고를 높이는것을 비롯하여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있다. 로작 《구호나무와 혁명유적, 유물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섬섬혁명사적지를 돌아보면서 일군들과 환담화》에는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이 천명되어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들에서 새로 발굴된 구호문헌들과 혁명유적, 유물들이 영광스러운 항일투쟁사를 해명하는데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할수 있게 하는 국보라는 데 대하여서도 혁명사적지를 잘 꾸리는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로작들에는 구호나무와 혁명유적, 유물들을 영구보존하며 축적력

명사적지에 통일전선사적탐을 세울데 대한 문제, 그를 통한 실물교양을 강화하며 해외동포들과 남조선인민들과 백두산지구를 구경하도록 할데 대한 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마천원원지를 잘 꾸리데 대하여》, 《대성산은 인민의 유원지도 더 잘 꾸리자》, 《평양시외 도시경관사업과 공급사업을 개선할데 대하여》 등의 로작들에서 마천과 대성산유원지, 구월산을 더 잘 꾸리고 공해현상을 방지하는것과 함께 주민공급사업을 개선하여 우리 인민에게 보다 훌륭한 문화휴식조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해줄데 대하여 밝혀주시였다. 전집에는 이밖에도 제일조선인운동을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분별주의자들의 《두개 조건》 조작책들을 짓부시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데 대한 문제,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친선관계를 강화할데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우리 혁명과 인민주주의운동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나서는 리론실천문제들에 명확한 해답을 주는 로작들이 편집되어있다. 《김일성전집》 제88권에 수록된 로작들은 실천을 통하여 그 진리성과 독창성, 생활력이 확증된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서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령도자과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과 맞이하기 위하여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기적과 위훈을

불굴의 정신력으로 발전소건설을 적극 다그치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원산군민발전소 건설자들의 열기모임

원산군민발전소건설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들은 도내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같은 신념을 지니고 일제의 경제강국건설수상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투쟁에 한걸음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심장깊이 새기고 청년돌격대원들을 비롯한 건설자들이 언제쌍기와 물길굴뚝이, 발전기실건설공사에서 위훈을 창조하며 가져오는 기술과 공법을 적극 장안도입하여

평안남도의 석탄공업부문을 당조직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안주, 순천, 덕천, 북창, 개천지구들 비롯한 석탄공업부문의 로동조직은 혁명적대고조의 불화를 높이 추켜들고 석탄생산에서 일대 혁신을 일으켜나감으로써 경제강국의 령마루를 점령하는데 한몫 단단히 하여야 합니다.》 나라는 석탄생산에서 안주, 순천, 덕천, 북창, 개천, 등각지구를 비롯한 평안남도의 탄광들이 맡고있는 임무는 매우 무겁고도 아름답다. 하지만 도안의 탄광들은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과 맞이하기 위해 석탄생산에서 계속 기세를 올리고있다. 탄광당조직들에서는 탄부들을 동원하여 석탄생산에서 선봉적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깊은 주춧돌을 놓아 한 개월이상 대한 능력확장공사와 현행석탄생산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개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북창지구탄광연합기업소 당조직에서는 3대혁명붉은기운동을 비롯한 여러가지 대

대고조전투쟁의 새 소식 운송강3호발전소를 새로 건설

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과 맞이하기 위해 힘차게 펼쳐나선 량강도안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운송강3호발전소 건설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다. 운송강3호발전소는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다!》라는 당의 구호를 심장깊이 새기고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한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건설관철의 투쟁을 힘차게 벌려온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높은 정신력이 낳은 빛나는 결실이다. 이 발전소가 완공됨으로써 운송강에 더 많은 전기를 보내줄수 있게 되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중소형발전소를 대대적으로 건설하여 나라의 전기화를 적극 실현해나가야 하겠다.》 얼마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량강도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설비조립을 끝내고 완공단계에 있는 운송강3호발전소건설을 빨리 끝내달데 대하여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말씀을 높이 받들고 도당위원회에서는 대고조의 무궁무진한 정신력을



희천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전기설비생산을 힘있게 다그친다. -내안전기공장에서- 본사기자 장정민 찍음

대중의 요구에 맞게 농촌단체조직들이 역할을 높이자

서리원시 미곡협동농장은 경에 하는 장군님께서 경쟁의 불씨를 심어주신 영광의 단위이다. 이곳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계속 떨치며 모든 영농과업수행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나가고있다.

우리는 농장이 이룩하고있는 훌륭한 성과의 비결의 하나를 농업과학기술사업에 대한 당적지도에서 찾게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의 농업혁명방향을 틀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적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미곡협동농장을 찾으실 때마다 언제나 전국의 앞장에 서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비약의 풍마를 타고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계속 떨치기 위한 당원들과 농장원들은 선진농업과학기술로 더욱 튼튼히 무장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혁신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새로운 리당위원회는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강화하기 위

본보기농장의 영예를 계속 떨치게 된 비결

한 사업을 당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밀고나갔다. 은과농업전문학교와의 긴밀한 관계밑에 수백명의 농장원들을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당파시켜 실력있는 농업과학기술인재들로 준비시킬 높은 목표를 내세웠을 때였다. 그때 일부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은근히 걱정하였다. 사실 한두명도 아니고 수백명의 농장원들이 한꺼번에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계에 당파되어 공부하던 당원들 농사일이 치질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리당비서 장경집동무의 결심은 확고하였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경쟁의 불씨를 심어주신 농장에서 당원들 영농과업수행에서 앞장서자면 농장원들이 농업과학기술에 정통하도록 해야 하며 이 사업은 미물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고 본 그의 견해는 옳았다.

리당위원회는 농장원들의 수준과 능력이 서로 다른 조건에 맞게 기사장이 주동이 되어 이미 기사, 기사대렬에 들어

선 농장원들이 실력이 낮은 농장원들을 담당하여 배워주기 위한 사업을 강하게 밀고나갔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기 위한 문제를 농사를 잘 짓기 위한 근원력의 하나로 보고 이 사업을 당적사업으로 전환시킨것, 바로 여기에 농장이 경쟁에서 본보기단위의 영예를 계속 떨칠수 있게 된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있다.

농장에는 절반이상의 농장원들이 기사, 기사이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자체의 과학기술력을 믿을지혜를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제2작업반 모내는기계운전수 배우를 교육체계에 당파되어 참가하게 된 농장원이다. 그가 모내는기계를 개조할것을 발기하였을 때였다. 그때 판리위원장, 리당비서를 비롯한 일군들은 그의 발기를 적극 지지하여 주동적으로 참여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장군님께서 농장원들에게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제7작업반에 나간 농장의 한 일군은 소문없이 혁신자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 단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제7작업반에 나간 농장의 한 일군은 소문없이 혁신자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 단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제7작업반에 나간 농장의 한 일군은 소문없이 혁신자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 단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제7작업반에 나간 농장의 한 일군은 소문없이 혁신자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 단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제7작업반에 나간 농장의 한 일군은 소문없이 혁신자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 단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제7작업반에 나간 농장의 한 일군은 소문없이 혁신자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 단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제7작업반에 나간 농장의 한 일군은 소문없이 혁신자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 단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제7작업반에 나간 농장의 한 일군은 소문없이 혁신자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 단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제7작업반에 나간 농장의 한 일군은 소문없이 혁신자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 단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제7작업반에 나간 농장의 한 일군은 소문없이 혁신자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 단

한편서도 논벼수출을 더 높일수 있는 전망을 열어놓은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적으로 제기되는 많은 문제를 해결하였다. 새로운 선진기술과 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미곡협동농장의 올해 농사결실은 불보듯 뻔하다.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장원대중을 과학기술인재로 키우는것과 함께 그들이 자기 위치에서 제 몫을 다하도록 고무하고 이끌어주는 농사실천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가도록 하는것 역시 중요하다. 여기서 주목되는 점은 기사, 기사들에게 영농실천에

대응할 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구성시 양하협동농장에서

구성시 양하협동농장에 가면 꽃밭처럼 알뜰하게 가꾸어진 강냉이포전들이 사람들의 눈길을 끈다. 여기에는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컬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한여름의 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기술력을 바쳐온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성실한 노력이 비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장에서는 로컬과 영농수단을 총동원하여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농장에서 강냉이밭 내밀김매기를 외따닥 해끼기 위한 문제가 토의된 때였다. 김매기 속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가지안이 제기되었지만 그중에서도 판리위원장의 발기가 회의참가자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다. 그것은 로컬이 긴장한 조건에서 작업반별 김매기를 집중적으로 해나가자는것이였다.

순간 농장일군들의 머릿속에는 지난해 김매기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때 작업반에서는 청년들을 앞장에 내세우고 사회주의영예를 힘있게 벌려 대중의 영의를 더욱 높임으로써 김매기를 외따닥 해끼기였던것이다. 이것은 혁명적충진정신을 수반하는 좋은 방법도였다.

이렇게 되어 작업반에서는 이 방법으로 김매기를 전투적으로 내밀게 되었다. 작업반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10월의 대추진장에 자랑찬 로컬적정신을 안고 멋있게 들어서자고 농장원들의 심장에

본사기자 홍성철

본을 지피면서 전투적으로 일해나가도록 떠밀어주었다. 농장원들의 기세는 드높았다. 제2작업반원들이 앞장에서 내달렸다. 작업반장 리학철동무는 포전별김매기일정계획을 면밀히 세워놓고 그날과제를 무조건 수행해나가도록 작업반원들을 이끌어갔다. 하루과제를 남기지 수행하고도 포전을 뜨지 않는 2분조작업반원들의 모범은 혁신의 불씨가 되어 온 작업반에 타병적이었다.

제6작업반 농장원들의 일손에는 보는 사람들도 감탄을 지어냈다. 위대한 장군님을 자기들의 포전에 모실한 마음으로 이들은 이른 아침이면 남편전 김매기전투장으로 달려나갔다. 작업반에서는 부림소관 리공들의 역할을 높여 후지들이 앞세워나가면서 농장원들이 기술적요구에 맞게 김매기를 질적으로 진행해나가도록 하였다. 농장원들은 구석진 곳에 있는 포전일수목을 메다시피 잔디길 길을 흩을 때 자신들의 깨끗한 마음을 바쳤다.

이렇게 일한 보람은 컸다. 모든 작업반들이 지난해 같은 시기보다 강냉이밭 내밀김매기를 질적으로 하면서도 훨씬 앞당겨 끝내게 되었던것이다. 꽃밭처럼 알뜰한 강냉이포전들이, 여기에는 대고조시대의 요구에 맞게 김매기목표를 높이고 작업반들에 내려간 일군들은 이곳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간접 일본새가 깃들었다.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본사기자 홍성철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있다. -작업반별 김매기전투소에서- 신충혁 찍음

승고한 뜻 실천으로 받들어

청단군 구월리당위원회에서 한때 깊은 관심을 돌리었다. 대용비료생산방법과 시비방법, 그 우월성을 본조장이상 초급일군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한 기술학습이 여러차례 진행되었다. 강사들은 기사장에게 내세웠다. 새로운 영농방법에 대한 일군들의 관심이 높아지는데 맞게 리당위원회에서는 다음단계로 작업반에서 농업과학기술자본진실감을 거점으로 농장원들속에 효능높은 대용비료를 생산하는 방법과 그 시비방법을 실물을 가지고 인식시키기 위한 사업을 심화시켜나가기 하였다. 이와 함께 국가과학원의 연구자와 합심하여 새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한 전투를 벌려나갔다. 이렇게 되어 농장에서는 자체로 효능높은 대용비료를 많이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바로 그 대용비료를 농장의 전면적에 시비하였는데 현재 농작물의 생육상태는 대단히 좋다. 이 나배에 리당위원회일군들은 이 나배에 효능높은 대용비료로 일하면 반드시 농사를 잘 지을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게 되었다. 본사기자

진심으로 떠밀어주며

남암리당위원회 사업에서 동할수 있게 하였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매일과 같이 농장원들중에서 뛰어난 공적수행자들을 뽑아내어 장교로 임명하고 그들에게 맡겨주었다. 장교로 임명된 이들은 장교로 임명된 농장원들이 조직된 행하는 당원들 농사일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도록 그 방법을 일깨워주곤 하였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사업을 당적으로 잘 뒤받침하는 본보기를 제7작업반에서 먼저 창조하고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도록 하였다. 지난해에 이 작업반은 모내기기를 비롯한 당원들 농사일에 앞장서서 모내기 작업을 맡겼다. 리당위원회에서는 행정경제 일군들의 이러한 작전을 당적으로 적극 뒤받침해주는 사업을 방법론있게 진행한것이다. 리당비서 장경집동무는 비롯한 당원들은 방충선진자와 포전방충제들을 잘 정비하여 방충상도판제부리기때부터 모내기, 김매기시기까지 정사가

대중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황주군 삼훈농장 일군들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는 데서 찾고 여기에 힘을 넣었다. 특히 사회주의경쟁을 방법론있게 조직하여 논밭비배관리의 모든 공에서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농장에서 김매기의 모든 공과장마철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서 사회주의경쟁을 조직하고 온 농장에 경쟁바람을 불리우었다. 세밀김매기총화가 끝나고 내밀김매기에 들어가면 어느날이였다. 제7작업반에 나간 농장의 한 일군은 소문없이 혁신자 모범을 적극 일반화하면 단

혁신적안목, 전투적인 일본새

본창지구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본창지구탄광은 특장지구탄광 연합기업소에서 석탄생산의 큰 몫을 맡고있는 탄광들중의 하나이다. 당대표자회를 로컬적성으로 맞이하기 위해 펼쳐나간 이곳 탄광의 일군들과 탄부들은 올해에 내세운 전투목표를 성과적으로 완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공적들을 벌려 이달에도 높은 생산실적을 기록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일군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의 앞장에서 어깨를 들이밀고 결연한 마음으로 대충을 이끌어가는 기수가 되고 실천가가 되어야 합니다.》

파일수송대 첫물복숭아 실고

평양도착 대담없는 감사의 정으로 설레고있었다. 김일성평장에 도착한 파일수송대는 평양시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전송을 받으며 락이소, 유치원들과 상업봉사망들로 향차로 수송해오고있다. 특파기자 김철일

본창지구탄광 일군들의 사업에서

</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강성대국의 역센 뿌리가 되려는 애국현신의 정신을 지니고 그 어떤 난관도 닦겨 여기며 오늘의 1분 1초를 깨달을 위한 위훈창조로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지난 6월 초 능력확장원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끝간데없이 펼쳐진 파수의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한평생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파일을 먹이시려고 그 뜻을 마음쓰시던

우리에게는 <백두산시절>이 있다!

백두산건설부대의 위용을 치며 승리만을 새겨온 618건설돌격대가 위대한 장군님의 원대한 구상을 높이 받들고 원동땅으로 달려온것은 지난해였다. 돌격대원들은 함파와 정대를 틀어쥐었다. 한집, 한집 언 땅을 깨며 산언덕을 잡고 골짜기를 메우가는 평양시리단 돌격대원들이여 콩크리트구조물이 막아나섰다.

콩크리트포장도로가 있던 구간에서는 연제와 싸워이긴 항일혁명선열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이어 자력으로 정대를 비롯한 작업공구들을 버려야 했다.

이런 <단야장>은 618건설돌격대의 어느 리더, 사단에서나 있었다. 령수 정대를 조여대는 함파시리와 포격이걸소리, 삽질소리는 순간도 멈춤이 없이 전투장을 들었다놓았다. 이렇게 깨낸 흙을 돌격대원들은 마대에 담아지고 말라졌고 <백두산시절>처럼 쉼도 없었다.

《동무들, 우리에게 <백두산시절>이 있지 않소.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보고있소.》 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 백두산의 눈보라가 불어쳐왔다.

일감지자 성대로 내뿜고 팔뚝을 굽히며 그대 고드름으로 변하는 사나운 거울에 허리치는 밀림의 눈속을 헤쳐며 통나무를 베어나르고 얼음물속에서

원흥땅에 울려가는 영웅적투쟁과 위훈의 노래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건설에 참가한 618건설돌격대원들의 투쟁

어바이수령님의 념원을 드디어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되었고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그날 위대한 장군님을 우러르며 격정으로 가슴을 끓이신 건설자들속에는 618건설돌격대원들도 있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뜻을 높이 받들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건설하는데 적극 이바지한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숭고한 정신세계와 불굴의 투쟁을 세상에 전한다.

토지정리전투가 시작될지 며칠 안되어 량강도리단김형권군대에는 <단야장>이 생겨났다. 여기서 돌격대원들은 열거록란을 만들어 일제와 싸워이긴 항일혁명선열들의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이어 자력으로 정대를 비롯한 작업공구들을 버려야 했다.

이런 <단야장>은 618건설돌격대의 어느 리더, 사단에서나 있었다. 령수 정대를 조여대는 함파시리와 포격이걸소리, 삽질소리는 순간도 멈춤이 없이 전투장을 들었다놓았다. 이렇게 깨낸 흙을 돌격대원들은 마대에 담아지고 말라졌고 <백두산시절>처럼 쉼도 없었다.

《동무들, 우리에게 <백두산시절>이 있지 않소. 백두산이 우리를 지켜보고있소.》 돌격대원들의 가슴속에 백두산의 눈보라가 불어쳐왔다.

일감지자 성대로 내뿜고 팔뚝을 굽히며 그대 고드름으로 변하는 사나운 거울에 허리치는 밀림의 눈속을 헤쳐며 통나무를 베어나르고 얼음물속에서

레를 눈우로 끝낸 돌격대원들이 매일 달린 지리는 백여리나 되었다. 원흥천제방공사로 낮과 밤이 따로없던 어느날 저녁 101리만의 정치일군은 해를 쬐고 흙을 나르는 두사람을 강다짐으로 멈춰세웠다. <정 이리긴가. 당장 들어가오. 그러다 첫날밤을 길가에서 밝혀놔.》 그러자 그날 오전 동지들의 축복속에 결손상을 받은 돌격대원시랑신부는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백두산에서 조선로동당의 영예를 지닌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한생 <백두산시절>처럼 변함없이 살자고 우리는 굳게 약속했습니까. <백두산시절>! 백두산마루에서 한겨울에 풍사를 벌리기 위해 땅을 울려다져서 키는 눈을 뜬다. 정대도 한집한집 뜰어내면서 백두산에 오르고 한시간에 방향이 열면도 더 바뀌는 세찬 눈보라속에서 무거운 돌을 등에 지고 아찔한 천지물계단을 하루에도 10여차례 오르내리며 <삽지연군건설속도>와 <백두대룡로기상>을 창조한 시절이었다.

그날의 모든 위훈을 다 헤아려주셔야 618건설돌격대원들의 영웅적위훈을 조국과 인민은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하시면서 돌격대원들에게 크나큰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정병 그들의 <백두산시절>은 혁명의 1세대이 피로써 성스러운 자욱우에 혁명의 3세, 4세들의 이름으로 위대한 장군님 시대의 불멸의 영웅사시를 새겨놓은 위훈의 시절이며 백두령의 축복속에 값있게 빛난 삶의 나날이었다.

그 시절을 안고사는 돌격대원들이기에 결손상을 받고난 그달음으로 전투장으로 달려나갔고 부모들이 썼던 자리를 지

켜 자식들이 달려나오고 불치의 병으로 앓으면서도 전투장을 뜨지 않고 완공의 날을 앞당겨가게 되였다. <백두산시절>을 안고살았기에 618건설돌격대는 몇달 안되는 사이에 70여정보에 달하는 파수원의 토지정리와 4천여m의 원흥천제방공사를 비롯한 방대한 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기쁨을 보셨을것이다.

《우리가 돌격대에 참가한 618건설돌격대원들의 투쟁》

《새로 입대된 대원들에 대한 기능검사를 소홀히 한 책임이 큼이다. 우리가 내놓은 모든 창조물들은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듬어야 할 선군시대의 기념비입니다.》

이러며 기초구멍이 세워지지 않으면 고여드는 물을 갈라피내고 기초에 들어가는 파이프 하나하나도 흠 한점 없게 정히 셋어내며 타입공사를 진행하는 돌격대원들.

그들은 하나의 제방도 이렇게 쌓았다. 그리고 제방물에 사과를 그려넣고 <무릉도원>, <선군11경>이라는 글밭도 정히 세기였다.

《백두의 흰눈처럼 깨끗하게,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하게!》

이런 마음을 안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열정을 바쳐가는 돌격대원들의 모습을 건설의 나날 그 어디서나 볼수 있었다.

기술구성의 요구라면 몇번씩 허물고 다시 쌓으며 살림집건 설에 지혜와 정성을 고인 성, 중앙기판사원 돌격대원들.

방금 기초콘크리트혼합물치기작업을 끝낸 원흥천제방공사장에 비가 쏟아지자 입고있던 비옷과 작업복까지 벗어치우며 자기들이 맡은 수십m구간의 제방을 지켜낸 림성세대 돌격대원들.

제방들 하나하나를 그 치수를 재어보며 정성들여 가꿨던 101리단 돌격대원들.

백두의 흰눈처럼 깨끗하고 천지의 맑은 물처럼 순결한 그런 마음들이 그대로 깃들고 다져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단발한 사과꽃,

자기들의 창조물을 조국과 후대에 앞세워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듬기 위해 바쳐온 조선인민보루군 건설자들과 618건설돌격대원들의 깨끗한 땅집과 뜨거운 지성을 그대로 안고 피어난 원흥땅의 사과꽃이어서 그토록 희고 아름다운것이 아니었나.

우리는 여기에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건설에 바쳐진 618건설돌격대원들의 땅과 지혜와 열정에 대해 그리지 못하였다.

혁명의 성지 건설의 그 날처럼 대동강과수종합농장 건설에 펼쳐진 618건설돌격대원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수많은 기관들과 지원자들의 소중한 도움이 없었나.

하지만 조국과 인민은 잊지 않을것이다. 21세기의 기념비적창조물인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더불어 조국의 또 하나의 자랑스러운 제방에 바쳐진 선군시대 인민들의 고귀한 정신과 애국충정을 청사해 빛날 것이다.

백두산기슭에서 태어난 첫날부터 이 땅에 시대의 기념비를 일떠세우며 승리와 영광만을 써가온 618건설돌격대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조국은 길이 전해갈것이다.

본사기자 장은영



《조선가극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대련시 관중의 심금을 울린 가극 <흥루몽>

《흥루몽》의 첫 공연이 진행된 후 그에 대한 반응이 굉장했다. 이런 훌륭한 가극이 우리 대련시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대련시민들은 누구나 가극 <흥루몽>을 보고싶어하였다. 가극공연은 종종 두 나라사이의 문화교류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중국방문에 이어 진행된것은 가극 <흥루몽> 공연은 중조친선관계발전에 기여하였다. 중국의 4대고전명작의 하나인 <흥루몽>에 대한 조선예술인들의 깊은 리해에 탄복하게 된다.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1부 시사회 진행

조선 4. 25 예술영화촬영소에서 예술영화 <해빛 밝아라> 제1부를 만들어 내놓았다. 영화시사회가 20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당과 군대, 국가간부들, 우당위권자, 당, 무력, 정권기관, 근로단체, 성, 중앙기판 일군들, 평양시대 일군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영화는 주인공을 비롯한 여인 가족들의 형상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속에 태어난 군인가족애호소조연은 그들의 선군시대의 녀성혁명가, 제2나팔수들로 내세워주고 선군문화의 창조자들로 키워주는

크나큰 사랑을 받아안은 전쟁로병과 지식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만경대구역 축전2동에서 사는 <김일성훈장> 수훈자, 전쟁로병 장지만과 조선적십자종합병원 연구사 교수, 박사 허철봉에게 은정어린 생일상을 보내시였다. 장지만은 해방후 그후를 고한 만경대를 찾은것을 따라 배워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선군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며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를 빛나는 로력적성공로에 맞게기 위해 맡겨진 본분을 다해갈 의지를 가다듬었다.

주조 무관단 전승혁명사적관 참관

민공화국대사관 국방무관단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께서는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혁명하게 령도하시어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이룩하시였다고 썼다. 이스카르 레자이푸르 이란이 슬라프공화국대사관 무관단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을 반대하는 정신에 떨치신데 대한 해설을 들으면서 사적물들과 화포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참관을 마치고 그들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다. 무관단장인 손연룡 중화인

수명교육에 큰 힘을 쏟어

학교에서는 단계별수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학급별, 학년별수명계획을 자주 조직하여 학생들의 수명교육을 한층 높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알제리 민족해방전선당 총비서가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렸을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던 때를 그는 잊지 않고 하면서 김일성주석의 집견을 받은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선에 가서 훌륭한 인민을 만나보았다. 우리는 형제적조선인민이 첨단과학기술과 경제

총비서가

설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들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6. 15 북남공동선언의 기치 따라 조선이 하루빨리 통일 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그는 알제리정부와 민족해방전선당은 나라의 발전과 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편대성을 보낼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국제회의에 방문하는

박의준외무상은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하노이에 가서 진행되는 아세안지역연담 회의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천년기개발포럼행진토에 관한

《조선가극의 미래는 밝고 창창하다》

대련시 관중의 심금을 울린 가극 <흥루몽>

《흥루몽》의 첫 공연이 진행된 후 그에 대한 반응이 굉장했다. 이런 훌륭한 가극이 우리 대련시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대련시민들은 누구나 가극 <흥루몽>을 보고싶어하였다. 가극공연은 종종 두 나라사이의 문화교류에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김정일총비서동지의 중국방문에 이어 진행된것은 가극 <흥루몽> 공연은 중조친선관계발전에 기여하였다. 중국의 4대고전명작의 하나인 <흥루몽>에 대한 조선예술인들의 깊은 리해에 탄복하게 된다.

수명교육에 큰 힘을 쏟어

학교에서는 단계별수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학급별, 학년별수명계획을 자주 조직하여 학생들의 수명교육을 한층 높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철신적복무정신을 안고

평양지하상점 일군들과 종업원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렸을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던 때를 그는 잊지 않고 하면서 김일성주석의 집견을 받은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선에 가서 훌륭한 인민을 만나보았다. 우리는 형제적조선인민이 첨단과학기술과 경제

국제회의에 방문하는

박의준외무상은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하노이에 가서 진행되는 아세안지역연담 회의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천년기개발포럼행진토에 관한

수명교육에 큰 힘을 쏟어

학교에서는 단계별수명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드는 한편 학급별, 학년별수명계획을 자주 조직하여 학생들의 수명교육을 한층 높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철신적복무정신을 안고

평양지하상점 일군들과 종업원들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렸을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던 때를 그는 잊지 않고 하면서 김일성주석의 집견을 받은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선에 가서 훌륭한 인민을 만나보았다. 우리는 형제적조선인민이 첨단과학기술과 경제

국제회의에 방문하는

박의준외무상은 단장으로 하는 우리 나라 대표단이 하노이에 가서 진행되는 아세안지역연담 회의와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천년기개발포럼행진토에 관한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를 만났다

김정일동지께서 자신의 충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하여드렸을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를 방문하던 때를 그는 잊지 않고 하면서 김일성주석의 집견을 받은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 조선에 가서 훌륭한 인민을 만나보았다. 우리는 형제적조선인민이 첨단과학기술과 경제

심각한 통치위기는 반역정책의 필연적산물

남조선집권세력이 《국회의원보충선거》를 앞두고 심각한 통치위기에 처하였다. 보수당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세계적 타만지고있다. 안락포도 공지에 몰린 집권세력은 살벌한 폭압분위기를 조성하고 진보세력에 대한 과소적탄압에 미쳐달려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것이다. 왜냐하면 남조선집권세력의 통치위기는 민심을 등진 반인민적정책의 필연적산물이기 때문이다.

남조선보수당국의 외세의존정책은 현 통치위기의 주된 원인이자, 현 남조선 《정권》은 철저한 친미사대 《정권》이다. 보수세력이 집권하자마자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운것은 외세의존정책의 뚜렷한 발로였다.

현 남조선당국자는 물론 그의 외교안보정책을 뒤받침하는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친미사대에 환장한자들이다. 그들에게는 나라와 민족의 리익이 아니라 보수 《정권》의 리익만이 있을뿐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남조선집권세력은 외세의 옷자락에 메달리며 민족을 반역하고있다. 최근 리명박이 미국에 비굴하게 간청하여 《전시작전통제권한》을 얻기까지한 것은 대외적실책이다. 보수세당은 회세의 반공화국모략단인 《천안》호침몰사건을 남조선에 《안보위기》를 조장하고 그것을 구실로 미국에 《전시작전통제권한》의 연기를 구걸하였다. 그대가로 그들은 남조선의 시장개방과 피괴의 해외파병, 미군유지비용액 등

미국의 강도적요구를 고스란히 받아들였다. 《전시작전통제권한》연기를 읊음을 통하여 남조선보수세당은 저들이 미국의 주구, 철저한 피괴들이라는것을 스스로 립증해보였다.

《천안》호침몰사건의 국제화책동을 통하여 남조선집권세력이 추구하는 외세의존정책의 반인민적인 본질과 사대매국적성격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외세의존에 환장한 보수세당은 합선침몰사건을 터지자 그것을 기화로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모해압살하기 위해 국제적인 반공화국대결소동에 피를 물고 날뛰었다. 그들이 합선침몰사건을 유엔에 상정시키고 미일상과 야합하여 반공화국제 《결의안》을 채택하려고 분별없이 헤매던것은 그에 대한 명백한 실증이다. 합선침몰사건국제화책동을 통하여 피괴들의 외세의존정책이 민족의 운명과 리익을 해치는 더러운 사대매국정책이라는것은 다시금 확증되었다.

남조선보수당국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악랄한 동족대결정책으로 인민의 원한과 분노를 샀다. 폭로연파와 같이 현 남조선당국의 《대북정책》인 《비핵, 개방, 3000》은 우리의 《선책포기》와 《제체전복》을 노린 반공화국대결정책이다. 보수세당은 《핵문제해결》을 북남관계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면서 6.15이후 활력있게 진행되던 대화와 협력사업들을 모조리 파탄시켰다. 그리고는 그것을 《원칙고수》론으로 정당화하면서 북남대결소동을 집요하

게 감행하였다. 보수세당은 우리의 북남관계개선에 노력에 《기다리는 전략》으로 대담해나섰다. 그들이 기다리는 것이란 북남관계의 개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체제하의 통일》이라는것은 두말할것 없다. 피괴들이 감히 우리의 존엄을 체체를 걸고들며 무슨 《급변사태》에 대처한 《부흥계획》과 같은 도발적인 북침문서까지 작성한것은 반인민적인 《제도통일》야망을 실현하기 위한것이었다.

합선침몰사건을 조작한 보수세당의 공작적목적도 북남관계를 돌이킬수 없는 파란국면에 몰아넣고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야망을 실현해보려는데 있었다. 피괴들은 합선침몰사건이 일어나자 덮어놓고 그것이 《북의 어뢰공격》에 의한것이라고 우겨대면서 북남관계의 전면파해를 선포하였으며 군사적대결과 북침전쟁도발소동에 기세를 부리었다. 세상에 자기 동족을 해치기 위해 대형모략사건까지 조작하고 대결과 통제를 그처럼 핑계를 부린 역적배들은 찾아볼수 없다.

남조선보수당국은 민심의 지향과 요구를 저버리는 반인민적정책을 서슴없이 감행하였다. 남조선의 현 통치배들은 말갈마다 《시련》을 위한 정치를 운운하였다. 그러나 실제에서는 절대다수의 인민들이 반대하는 《세종시수정안》과 《4대강정비사업》과 같은 반역정책을 한사코 추진하였다. 그것이 근로대중의 리익이 아니라 저들 통치배들의 리익을 위한것이라는것은 논할 여지가 없다.

남조선 각계에서 《세종시수정안》을 가리켜 《민중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 《역사상 최악의 정책실책》이라고 비난하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보수세당은 지난 6월의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데 이어 《국회》에서 《세종시수정안》마저 부결됨으로써 비난받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보수세당은 지난 6월의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데 이어 《국회》에서 《세종시수정안》마저 부결됨으로써 비난받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보수세당은 지난 6월의 《지방자치제선거》에서 대참패를 당한데 이어 《국회》에서 《세종시수정안》마저 부결됨으로써 비난받고있는것은 우연치 않다.

외세의존과 동족대결에 미쳐달려면서 반인민적악정을 강행추진하는 현 보수당국에 대한 민심의 분노는 극도로 달아났다. 얼마전 서울에서 보수당국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하는 인민들의 대중적인 촛불시위가 벌어졌것은 민심의 분노가 2년전 미국소고기 수입제계를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벌어지던 때와 다를바 없었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설상가상으로 《청와대》와 《한나라당》을 비롯한 집권층내부의 알뜰과 권력암투가 절정에 달하고 권력형 부정부정사건인 《영모회사건》까지 터져 보수세당은 말그대로 사면초가의 위기에 처하였다. 인민을 등진 반역도배들은 웅덩이 대가를 치르고있다.

지금 남조선보수세력이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집권후반기 안정을 이루려고 발악하고있지만 인민들은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다가오는 《국회의원보충선거》에서 반역도배들에게 또 다시 수리수리를 참패를 안길것이다. 조 남 수

반공화국흥심을 드러낸 대결전쟁모의

얼마전 남조선당국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정명태력후 처음으로 되는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벌여놓았다.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방부》 장관들과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등이 참가하여 이 회의에서 피괴들은 《천안》호사건을 계기로 계획한 미국과의 해상연합훈련과 《대북심리전간화》, 《남북협력증진》 등 《대북조치》들의 실행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한다.

알려진바와 같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의장정명상에서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들을 직접대화과 협상을 제재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장려한다고 밝혔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정명태력후 처음으로 되는 외교안보문제회의라던 그것은 웅덩이 내외의론과 국제사회의 요구에 맞게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추동하는 방안들을 협의하는 마당으로 되어야 할것이다. 미국과의 해상연합훈련과 《대북심리전간화》, 《남북협력증진》 등 피괴들이 합선침몰사건이후 취한 이른바 《대북조치》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정명에 완전히 배치된다.

하지만 남조선보수세당은 이번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증단할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해상연합훈련을 미항공모함을 서해가 아닌 동해나 남해에 투입하여 전개하는 방법으로 기어로 실사할공모기를 하였다. 《대북심리전간화》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정명에 완전히 배치된다. 하지만 남조선보수세당은 이번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증단할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해상연합훈련을 미항공모함을 서해가 아닌 동해나 남해에 투입하여 전개하는 방법으로 기어로 실사할공모기를 하였다.

《대북심리전간화》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정명에 완전히 배치된다. 하지만 남조선보수세당은 이번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증단할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해상연합훈련을 미항공모함을 서해가 아닌 동해나 남해에 투입하여 전개하는 방법으로 기어로 실사할공모기를 하였다. 《대북심리전간화》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정명에 완전히 배치된다. 하지만 남조선보수세당은 이번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증단할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특히 내외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해상연합훈련을 미항공모함을 서해가 아닌 동해나 남해에 투입하여 전개하는 방법으로 기어로 실사할공모기를 하였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 참가한자들을 보면 실용하고 지극히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북남관계를 중지박산내기

위해 맨 앞장에서 날런 극악한 대결미치광이들이다. 합선침몰사건이라는 반공화국모략극을 날조한것은, 그것을 걸고 서둘러 대한것은 악담을 쏟아놓으며 대결전쟁분위기를 고취한것으로, 제 정에 앉아있을 사이도 없이 발파닥에 붙어 일도룩 동문서주하며 국제적인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헤매던것은 바로 이자들이다.

이 악질대결분자들은 유엔에서 저들의 의도와 다른 의장정명이 나오자 극도의 불안감에 휩싸였다. 시작은 요란하게 댔는데 걸어진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의 궁색한 형편이다. 국제적인 반공화국제재늬움은 수포로 돌아가고 세계면전에서 망신당한 보수세당은 어떻게 하나 유엔에서의 참패를 만회하고 제편을 세우며 김빠진 대결모략소동에 활기를 불어넣어보고 발악하고있다. 화석처럼 굳어진 피괴들의 이 지독한 대결자세의 발로가 바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인것이다.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일정한 요구이다. 현정세에서 또 하나의 추기가 나타나고있다. 그러나 유독 남조선피괴들만은 대세를 볼줄 모르고 협애한 대결판면에 빠져 비리성적으로 처신하고있다. 바로 그런것으로 하여 그들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있는것은 물론 남조선내부에서도 각계층의 규범제재를 받고 회외의 통치위기에 몰리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국외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면서 대결과 전쟁의 길로 질주해온 반역도배들의 피치 못할 가련한 운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남조선보수세당은 합선침몰사건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어리석은 대응을 교훈을 찾아야 하며 북남관계의 대결을 결코 현사에서도 각계층의 규범제재를 받고 회외의 통치위기에 몰리고있다. 북과 남사이의 국외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면서 대결과 전쟁의 길로 질주해온 반역도배들의 피치 못할 가련한 운명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우리는 남조선당국이 현실을 외면하고 계속 대결과 전쟁으로 졸담을치는것을 전대로 목격하지 않을것이며 그에 단호히 대응해나갈것이다. 남조선당국자들은 대결전쟁열로 들뜬 머리들 식고 분별당겨 처신하여야 한다.

최철순

침략적인 《동맹》 강화책동을 단죄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와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민주조총을 비롯한 남조선의 10개 시민사회, 청년학생, 종교단체들이 13일 130차 《자주통일평화행동》을 가지고 미국과 남조선피괴들의 《동맹》 강화책동을 단죄하였다. 단체들은 얼마전 미국당국자

와 리명박역적이 《전시작전통제권한》을 얻기까지한것을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단체들은 규탄하였다. 단체들은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대미중독의 심화와 침략 《동맹》 강화를 위한 책동을 단죄 중지하고 조선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설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통일인사의 평양 방문을 격려

제미동종교인들이 14일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통일인사한상철목사에게 보내는 격려편지를 6.15 공동선언실천해인위원회에 발송하였다. 편지는 리명박 《정권》이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무시하고 통일을 열망하는 민주세력을 탄압하고있을뿐 아니라 《잃어버린 10년》을 운운하며 북남관계를 파탄

시켰다고 규탄하였다. 리명박 《정권》에 의해 6.15 공동선언발표 10돐기념 민족공동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편지는 남조선당국이야말로 《사악하고 무지한 정권》이라고 단죄하였다. 편지는 6.15를 살리고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종검교 평양을 방문한 한상철목사의 의로운 행

남조선의 핵보유시도를 폭로

15일 로씨야신문 《네치비사이아 가제트》가 남조선피괴들이 핵보유를 시도하고있는데 대해 폭로하였다. 신문은 《핵폭탄에 손을 뻗지는 서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고 남조선이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연료의 재처리장치를 가동시키려 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최근년간 남조선이 여러차례

남조선에서 수족구병 확산

14일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에서 수족구병이 계속 확대되고있다. 지난 12일 남조선 1개 월 밖에서 안된 남자들이 수족구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다. 지금까지 수족구병이 수급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다.

통해 본 호전적정체

로 위협해보려고 날뛰고있는 피괴군부대거리들은 물러서지 하지 않았다. 피괴들은 《련합훈련에 참가하겠다는 미국의 립장은 확고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서둘러 같이 빠져가려는 정정면 습격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발악하였다. 한편 상전에게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려고 절묘하게 달라붙었다.

이 얼마나 대결과 전쟁에 환장한 역적배들인가. 리명박일당에게는 우리 민족이 핵전쟁탄을 당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오직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을 무력으로 막고야 마땅치 않다. 사실들은 남조선집권세력이야말로 외세와 야합하여 동족을 모해압살하려고 피를 물고 날뛰는 세상에 들도 없는 미국노기단, 극악한 전쟁미치광이를 계획대로 내밀어달라는 청탁이었다. 이어 피괴군부대거리들은 미국이 저들이 《원하는 일과 규모대로 훈련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환장성을 질렀다.

《4대강정비》공사 반대투쟁 전개

16일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 각지에서 《4대강정비》공사반대투쟁이 연이어 전개되고있다. 1만 7000여명의 반공화국인들은 15일 발표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반인민적 악행 규탄

남조선의 친보편파가 15일 문경을 발표하여 부분별한 폭압소동을 일삼는 피괴집권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였다. 문경은 검찰이 단체의 권 정책위원장 정대평과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욱에 대한 구속명장을 제정구한 사실을 밝혔다. 얼마전 이들에 대한 구속명장

인권침해행위를 규탄

남조선의 친보편파가 15일 문경을 발표하여 부분별한 폭압소동을 일삼는 피괴집권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였다. 문경은 검찰이 단체의 권 정책위원장 정대평과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욱에 대한 구속명장을 제정구한 사실을 밝혔다. 얼마전 이들에 대한 구속명장

불법행위의 배후조사를 요구

남조선의 친보편파가 15일 문경을 발표하여 부분별한 폭압소동을 일삼는 피괴집권당국의 부당한 처사를 규탄하였다. 문경은 검찰이 단체의 권 정책위원장 정대평과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욱에 대한 구속명장을 제정구한 사실을 밝혔다. 얼마전 이들에 대한 구속명장

전쟁연습강행기도를 통해 본 호전적정체

피괴군부대거리들은 물러서지 하지 않았다. 피괴들은 《련합훈련에 참가하겠다는 미국의 립장은 확고하다.》느니 뭐니 하면서 서둘러 같이 빠져가려는 정정면 습격에 활기를 불어넣으려고 발악하였다. 한편 상전에게 합동군사연습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려고 절묘하게 달라붙었다.

《4대강정비》공사 반대투쟁 전개

16일 남조선 《CBS》 방송에 의하면 남조선 각지에서 《4대강정비》공사반대투쟁이 연이어 전개되고있다. 1만 7000여명의 반공화국인들은 15일 발표를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송하고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갔다.

역적패당의 로동운동탄압책동을 반대하여 투쟁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에서 6.25

남조선에서 6.25를 계기로 보수세당이 벌여놓은 불운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사회를 어지럽히고있다. 현 집권자가 역대 집권자들도 거러한 《유엔리조》를 찾아가 《희생》이니, 《감사》니 하며 참패하는 늑음을 버려졌는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위한 그 무슨 《위로연》이니, 《기념식》이니 하는 역겨운 늑음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런 속을 피괴당이 저러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모략적인 《안보교육》소동을 더한것은 그야말로 악용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괴들이 각계의 규범제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 엉성사료들이라는것이 진실의목과 사실은모략을 열락하는것은 논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거

남조선에서 수족구병 확산

14일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에서 수족구병이 계속 확대되고있다. 지난 12일 남조선 1개 월 밖에서 안된 남자들이 수족구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다. 지금까지 수족구병이 수급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다.

남조선에서 수족구병 확산

14일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에서 수족구병이 계속 확대되고있다. 지난 12일 남조선 1개 월 밖에서 안된 남자들이 수족구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다. 지금까지 수족구병이 수급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다.

남조선에서 수족구병 확산

14일 남조선 《KBS》 방송에 의하면 최근 남조선에서 수족구병이 계속 확대되고있다. 지난 12일 남조선 1개 월 밖에서 안된 남자들이 수족구병에 의한 합병증으로 숨졌다. 지금까지 수족구병이 수급 발생하였으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한다.

남조선에서 6.25

남조선에서 6.25를 계기로 보수세당이 벌여놓은 불운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사회를 어지럽히고있다. 현 집권자가 역대 집권자들도 거러한 《유엔리조》를 찾아가 《희생》이니, 《감사》니 하며 참패하는 늑음을 버려졌는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위한 그 무슨 《위로연》이니, 《기념식》이니 하는 역겨운 늑음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런 속을 피괴당이 저러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모략적인 《안보교육》소동을 더한것은 그야말로 악용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괴들이 각계의 규범제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 엉성사료들이라는것이 진실의목과 사실은모략을 열락하는것은 논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거

남조선에서 6.25

남조선에서 6.25를 계기로 보수세당이 벌여놓은 불운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사회를 어지럽히고있다. 현 집권자가 역대 집권자들도 거러한 《유엔리조》를 찾아가 《희생》이니, 《감사》니 하며 참패하는 늑음을 버려졌는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위한 그 무슨 《위로연》이니, 《기념식》이니 하는 역겨운 늑음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런 속을 피괴당이 저러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모략적인 《안보교육》소동을 더한것은 그야말로 악용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괴들이 각계의 규범제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 엉성사료들이라는것이 진실의목과 사실은모략을 열락하는것은 논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거

남조선에서 6.25

남조선에서 6.25를 계기로 보수세당이 벌여놓은 불운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사회를 어지럽히고있다. 현 집권자가 역대 집권자들도 거러한 《유엔리조》를 찾아가 《희생》이니, 《감사》니 하며 참패하는 늑음을 버려졌는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위한 그 무슨 《위로연》이니, 《기념식》이니 하는 역겨운 늑음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런 속을 피괴당이 저러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모략적인 《안보교육》소동을 더한것은 그야말로 악용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괴들이 각계의 규범제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 엉성사료들이라는것이 진실의목과 사실은모략을 열락하는것은 논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거

남조선에서 6.25

남조선에서 6.25를 계기로 보수세당이 벌여놓은 불운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사회를 어지럽히고있다. 현 집권자가 역대 집권자들도 거러한 《유엔리조》를 찾아가 《희생》이니, 《감사》니 하며 참패하는 늑음을 버려졌는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위한 그 무슨 《위로연》이니, 《기념식》이니 하는 역겨운 늑음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런 속을 피괴당이 저러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모략적인 《안보교육》소동을 더한것은 그야말로 악용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괴들이 각계의 규범제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 엉성사료들이라는것이 진실의목과 사실은모략을 열락하는것은 논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거

남조선에서 6.25

남조선에서 6.25를 계기로 보수세당이 벌여놓은 불운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사회를 어지럽히고있다. 현 집권자가 역대 집권자들도 거러한 《유엔리조》를 찾아가 《희생》이니, 《감사》니 하며 참패하는 늑음을 버려졌는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위한 그 무슨 《위로연》이니, 《기념식》이니 하는 역겨운 늑음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런 속을 피괴당이 저러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모략적인 《안보교육》소동을 더한것은 그야말로 악용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괴들이 각계의 규범제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 엉성사료들이라는것이 진실의목과 사실은모략을 열락하는것은 논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거

남조선에서 6.25

남조선에서 6.25를 계기로 보수세당이 벌여놓은 불운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사회를 어지럽히고있다. 현 집권자가 역대 집권자들도 거러한 《유엔리조》를 찾아가 《희생》이니, 《감사》니 하며 참패하는 늑음을 버려졌는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위한 그 무슨 《위로연》이니, 《기념식》이니 하는 역겨운 늑음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런 속을 피괴당이 저러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모략적인 《안보교육》소동을 더한것은 그야말로 악용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괴들이 각계의 규범제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 엉성사료들이라는것이 진실의목과 사실은모략을 열락하는것은 논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거

남조선에서 6.25

남조선에서 6.25를 계기로 보수세당이 벌여놓은 불운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사회를 어지럽히고있다. 현 집권자가 역대 집권자들도 거러한 《유엔리조》를 찾아가 《희생》이니, 《감사》니 하며 참패하는 늑음을 버려졌는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위한 그 무슨 《위로연》이니, 《기념식》이니 하는 역겨운 늑음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런 속을 피괴당이 저러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모략적인 《안보교육》소동을 더한것은 그야말로 악용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괴들이 각계의 규범제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 엉성사료들이라는것이 진실의목과 사실은모략을 열락하는것은 논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거

남조선에서 6.25

남조선에서 6.25를 계기로 보수세당이 벌여놓은 불운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사회를 어지럽히고있다. 현 집권자가 역대 집권자들도 거러한 《유엔리조》를 찾아가 《희생》이니, 《감사》니 하며 참패하는 늑음을 버려졌는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위한 그 무슨 《위로연》이니, 《기념식》이니 하는 역겨운 늑음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런 속을 피괴당이 저러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모략적인 《안보교육》소동을 더한것은 그야말로 악용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괴들이 각계의 규범제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 엉성사료들이라는것이 진실의목과 사실은모략을 열락하는것은 논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거

남조선에서 6.25

남조선에서 6.25를 계기로 보수세당이 벌여놓은 불운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사회를 어지럽히고있다. 현 집권자가 역대 집권자들도 거러한 《유엔리조》를 찾아가 《희생》이니, 《감사》니 하며 참패하는 늑음을 버려졌는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위한 그 무슨 《위로연》이니, 《기념식》이니 하는 역겨운 늑음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런 속을 피괴당이 저러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모략적인 《안보교육》소동을 더한것은 그야말로 악용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괴들이 각계의 규범제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 엉성사료들이라는것이 진실의목과 사실은모략을 열락하는것은 논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거

남조선에서 6.25

남조선에서 6.25를 계기로 보수세당이 벌여놓은 불운한 반공화국대결소동이 사회를 어지럽히고있다. 현 집권자가 역대 집권자들도 거러한 《유엔리조》를 찾아가 《희생》이니, 《감사》니 하며 참패하는 늑음을 버려졌는가 하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했던 고용병들을 위한 그 무슨 《위로연》이니, 《기념식》이니 하는 역겨운 늑음들이 연이어 벌어졌다. 이런 속을 피괴당이 저러하는 새 세대들을 대상으로 모략적인 《안보교육》소동을 더한것은 그야말로 악용하고있는 것이다. 그러나 피괴들이 각계의 규범제재를 면피하려고 하는 그 엉성사료들이라는것이 진실의목과 사실은모략을 열락하는것은 논할 필요 없다. 이에 대한 각계의 비난이 거

